

또 하나의 나 우리

Summer 2011_Vol.55

www.plankorea.or.kr



행복을 주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윤형빈, 정경미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졌네요. 이 인사말이 후원자님들과 만날 때쯤이면 장마철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4월 KBS 나눔대축제를 통해서입니다. 평소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던 '봉사', '기부', 그리고 '나눔' 과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해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커플이 라오스에 사는 한 여자 어린이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후원자님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깐요.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기부천사라 불리는 사람들 외에도 소리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고 보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플랜코리아의 새내기 후원자로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지만 앞으로 더욱 커다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커플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총량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기를 기원하며, 항상 저희 윤형빈, 정경미 커플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4



6



10



12



14



CONTENTS

- 04 지구촌을 간다 I _ 플랜코리아 최윤성 주임
- 06 지구촌을 간다 II _ 후원자 나윤정
- 08 우리는 플랜가족 _ 후원자 천승수
- 10 Photo Essay
- 12 나눔의 행복 _ 한국중부발전(주)
- 14 THE좋은모임
- 16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_ 캄보디아
- 17 알려드립니다
- 18 Plan Board

플랜 NEWS

- 20 플랜코리아 소식
- 21 플랜 지구촌 소식
- 22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일시 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 후원





달라이니 마을의 초등학교

축구와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 가나. 한국과 9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가나는 기니만에 면한 연안 국가로, 동쪽으로 코트디부아르, 서쪽으로 토고, 북쪽으로 부르키나 파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가나는 인근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의 지배를 받아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이다. 이번엔 방문한 지역은 가나의 최북서부에 있는 WA 지역에 위치한 달라이니 마을로, 수도인 아크라로부터 자동차로 약 12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다. 이동을 위해 아침 6시에 아크라를 떠나 오후 5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한 가나도 여느 아프리카와 같이 세계 각지에서 온 중고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단종된 우리나라의 티코가 택시 번호판을 달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줄줄이 늘어선 티코를 보면서 내가 가나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곳은 1박 2일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과 같은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인터넷 연결 불가능 신호가 뜨고 - WA 지역은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인 모뎀을 가져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 차가운 물을 틀어도 지열로 데워진 물이 나오는 화장실, 예고 없이 정전이 되는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여느 국가와 같이 가나 또한 수도와 타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수도에서 12시간 떨어진 WA 지역은 가나에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로, 수도인 아크라와 비교하면 국민소득, 문맹률 및 영양결핍률 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 환경 역시 예외는 아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있는 마을이 제한적이고, 학교가 있다고 해도 정식 건물

이 아닌 가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달라이니 초등학교 건축 사업은 KOICA와 플랜의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사업 시작과 함께 성인 남성의 비전문 노동력 제공, 성인 여성의 공사 물품 이동 등을 지원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기를 맞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유실되어 사업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3개월간 중단된 사업은 우기가 끝나면서 재개되었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2011년 3월 완공되었다. 사업이 진행된 달라이니 지역은 WA 지역의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1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략 138가구의 1,02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기 전, 달라이니 지역에는 오두막과 벧집으로 지은 교실 5개의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오두막과 벧집으로 지어진 교실로 인해 우기와 건기에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이는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던 이곳이 새로 지어진 학교를 통해 조금은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3월 31일, 완공된 학교를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준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교육부 담당자, 주 대표, 달라이니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해 잔칫날과 같은 분위기로 마을은 들떠있었다. 지역 주민과 교육부 담당자, 주 대표, 달라이니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준공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망울이 반짝거렸다. 행사를 마치고 공개된 학교는 총 6개의 교실과 도서관, 교무실, 창고로 이루어졌으며 교실에는 2인용 책상이 20개씩 비치되어 있었다.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감탄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도서 2천여권이 비치된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한 장소

였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책이 꽂혀 있는 도서관에 들어선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그저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있었다. 책을 꺼내서 읽어도 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생들이 조심스레 책을 꺼내 들고 신기한 눈으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교과서조차 마음껏 받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이러한 도서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도울 뿐 아니라 가나의 공용어인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달라이니 마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가 생겼다. 아직 마을에는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달라이니 마을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하며, 사업을 지원해 준 KOICA와 플랜 가나 스태프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사진 대외협력팀 최윤성 주임



방글라데시 후원아동 방문기

세계최빈국, 높은 행복지수, 극심한 양극화 등 방글라데시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한정적이었다. 개발도상국을 위험지역으로 규정하거나 그 나라 국민들을 불쌍하고 열등감 가득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처럼 사실 나 역시도 그랬다. 언니와 함께 후원아동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방글라데시는 예상대로 지저분했고 먼지로 가득한 공기는 숨쉬기 힘들었고,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길거리와, 가로막는 이가 없어도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자동차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 곳이 우리의 친구인 리폰과 압사나가 사는 나라라고 한다. 모든 것이 흥분 그 자체다.

먼저 방문한 곳은 언니가 후원하는 리폰이 살고 있는 다카 외곽의 바우니아밧이라는 마을이었다. 30여 분을 이동하자 마치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영등포의 쪽방 보다 작아 보이는 집들이 좁다랗게 붙어있고,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서 흑백 TV를 관람하는 슈퍼마켓 앞에는 개와 염소들이 길바닥에 널부러져 잠을 청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지나가자 아이들은 “비데시!”(외국인)라고 외치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영화 속 풍경에 들어가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 만난 리폰은 7살이었지만 4~5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체구를 가진 아주 귀엽고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처음 보는 우리가 낯설었던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리폰에게 가지고 간 고무공과 학용품, 막대사탕을 주자 긴장한 듯했던 얼굴이 밝아지며 작은 품 안에 선물을 꼭 움켜쥐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자 리폰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사탕 5개를 한꺼번에 해치우고 친구들과 선물들을 풀어보고 있었다. 친जन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보자 어찌나 반갑고 귀엽던지 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축대밭이 되어버린 리폰의 집을 나와 우리는 플랜이 만든 학교와 병원, 보육원, 직업교육센터를 둘러보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바우니아밧 마을은 많은 시설들이 플랜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후원금을 아이와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사회에 들어가 개발사업을 펼치는데 후원금이 쓰이고, 그것을 결국 후원아동과 가족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실제로 철저하게 지역사회 단위로 움직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생김으로써 공부




를 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언젠가 그들 스스로 이 지역을 세워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우리는 내 후원아동 압사나가 사는 가지푸르로 향했다. 압사나는 내가 처음 받았던 보고서에 쓴 대로 'Cheerful'한 소녀였다. 나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팔짱을 꼭 끼고 눈웃음을 치며 때때로 '쿠시?(행복해?)'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도 '쿠시'라고 답하면 자신도 '쿠시' 하라며 까르르 웃는다. 나를 무서워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도 환한 얼굴로 귀여운 웃음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고 행복하기 그지 없었다. 6년 전 후원을 시작했을 때 보내준 크레파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압사나는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내가 보낸 편지들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곳에 오는 내 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더 나눠주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던 내게 압사나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주었고, 한국에서는 쉽게 잊고 살아왔던 행복하고 중요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압사나가 3살 때부터 다녔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초등학교에는 플랜에서 지원한 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학교 앞에는 플랜이 시행하는 여러 프로젝트 - 신발신기, 손 씻기 - 들의 홍보와 그 효과를 나타내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알리고 권장하는 캠페인과 교육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이라는 플랜 직원의 설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압사나와 사촌들은 우리가 떠날 시간이 되자 눈물을 흘렸다. 압사나의 어머니도 우리 자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음에 또 와달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다. 방글라데시에 오기까지 비자 발급부터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번 방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쏟아지는 질문들을 받으며 한국의 평범한 시민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는 것이 왠스레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진 게 조금 적을지라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것이 방글라데시 행복 지수의 비결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사는 낙원 같은 곳이었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학생들이 학대와 괴롭힘으로 학교에서 소외되고, 서민들이 먹는 곡물의 가격은 계속 치솟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신부가 가져가야 할 지참금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내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각박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답답함에 가슴이 꼭 막히는 듯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도움이 아이들에게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미래의 작은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두 꼬마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강해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란다. 압사나는 6살 때와 변함없이 의사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 꿈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꺾이지 않고 이뤄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사진 나윤정 후원자



- 1 유아사망률이 높은 마을의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영양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가지도 있었다.
- 2 가는 곳마다 많은 음식들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둘러져라 쳐다보고 있다.
- 3 압사나의 삼촌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뜯어 손바닥에 염색을 해보았다. 여성에게, 혼의 징표로 물들이는 표식이라고 한다.

Plan Family Interview

— 후원자 천승수, 송인옥 부부

다양한 행사들과 후원자 모임을 비롯해 이번 봄에도 후원자님들을 만나 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랜코리아는 참으로 다양한 후원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직업, 후원의 동기는 모두 달라도 지구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후원자님들과 갖는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는 그래서 또한 설레기도 합니다. 8년 간의 뉴질랜드 생활을 정리하고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오신 천승수 후원자님과 아내 송인옥 후원자님을 만나기 위해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적응은 되셨나요?

4월 초에 돌아왔으니 아직도 정신이 없네요. 짐 정리도 끝내지 못해서 우리 메리(Mary) 사진이랑 편지들도 박스에 그대로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뉴질랜드 있을 때도 항상 집에 걸려있던 사진인데, 아직 메리는 짐에서 못 꺼내주고 있어서 미안해요.(웃음)

어린 시절 양친회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의 기억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사실 이번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지만 양친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승낙했어요.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5남매를 키우셨어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집이 양친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후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 손 붙잡고 양친회 시설에 따라다니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후원자님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메리가 보낸 편지를 받으면 항상 그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요. 잘 알지도 못하는 후원자님한테 할말도 별로 없는데 편지를 쓰라고 하니 골치가 꽤나 아팠을 거예요. 근데 메리도 나를 닮았는지 문장실력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웃음)

플랜코리아와의 인연도 양친회를 계기로 시작 되었던데요.

그렇죠. 어렸을 때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나면서 이제는 나도 갚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후원해주신 그 분을 만나고 싶기도 해서 “양친회”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 플랜코리아가 나오더라고요. 받았던 사랑을 되갚고 있는 플랜코리아의 활동처럼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뉴질랜드로 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제 나이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영어실력도 부족한 제가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1년 반 전에 인터내셔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중국, 인도, 피지, 홍콩, 태국, 남아공, 그리고 한국, 이렇게 9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출신과 인종이 다를 뿐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결국 같더라고요. 삶과 삶이 맞닿으면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맛은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동일하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케냐에 사는 우리 메리와도 마음으로 통하고 있는 것처럼요.

목사님이신데 비종교 단체인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하시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인데,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아이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후원이고, 그 진심이 아이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고 가계 할 수 있는 통로인 플랜이라는 나무가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동안에도 편지나 선물을 자주 챙겨주셨더라고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3월 19일 메리의 생일은 잊지 않고 꼭 축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전에 보내야 제 때 도착한다고 하니 한국으로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서 미리부터 선물을 고르러 다니고 직접 생일카드도 만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받았다는 편지가 도착했다고 뉴질랜드로 직접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메리가 사춘기 때라 그 나이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할 텐데 보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물 정책이 없어서 아쉽죠. 그래서 대신에 더 자주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메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

경에서 사춘기라는 것을 겪을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장과정에서 메리의 부모님이 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줬으면 해요.

“메리”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게 정말 딸 대하듯 하시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집에서도 우리 딸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둔 메리 사진을 보고 흑인이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누구냐고 자주 물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라고 대답했죠. 메리 꿈이 간호사예요. 늘 자기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편지를 받으면, 메리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희 환경이 허락되지만 한다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간호사로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살 때 만난 우리 메리가 벌써 14살이 됐어요. 진짜 제 자식같이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두 분에게 후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해서 질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외로워지더라고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돕고 나누다 보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단 한 명을 후원해도 전심으로 이 아이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고자 노력하는 저희의 작은 실천인 거죠.

천승수 후원자님은 인터뷰 마지막에 플랜코리아 직원들의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격려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더 많은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플랜을 통해 좋은 일들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는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그렇게 5월의 마지막 날이 저물었습니다.



1

2

1_ 플랜은 피해지역에 43개의 영유아개발센터(ECCD)를 다시 세우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복구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난지역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랜은 기초교육뿐 아니라 보건·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Plan World Photo Gallery

미얀마 전역을 휩쓸었던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악몽을 겪은 후 3년이 지난 지금, 피해의 현장에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3

이 지역의 1만5천명의 가족들이 센터의 운영과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동안 세 살된 딸을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시킬 수 있는 ECCD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카잉의 어머니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 딸이 매일 이곳에서 배운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또 체중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2_ 미얀마 현지의 협력업체들과 함께 플랜은 51개 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에는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새 교실에 걸린 칠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학생은 동갑내기 1학년 친구입니다. 새로 건립된 학교는 학생들뿐 아니라 주민들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튼튼하게 세워진 학교건물은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_ 13세 라잉라잉은 사이클론에 붕괴된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복구하는 현장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입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완성되어 다시 예전처럼 공부할 수 있기를 간

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모래와 콘크리트를 퍼 나르는 일이지만, 라잉라잉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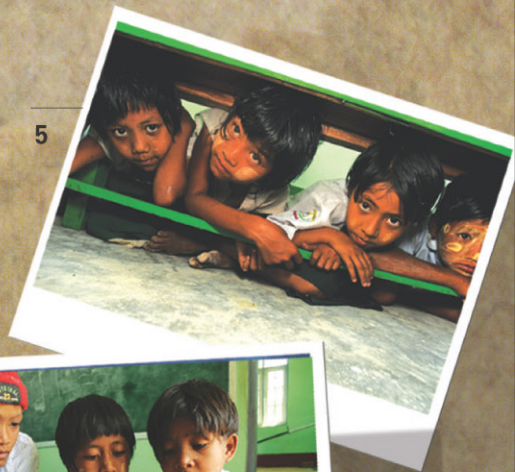
4_ 플랜에 의해 새롭게 단장된 학교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꽃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플랜은 재난의 충격에 빠진 어린이들이 안정을 되찾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습니다.

5_ “지진이대! 선생님이 책상을 두들기고 흔들며 지진 발생 상황을 연출하자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대피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쓰나미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플랜은 델타 지역의 약 44만 명의 주민들에게 재난위기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수업시간에 하는 놀이와 학습을 통해 그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4



5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빛을 비추다.

2001년 4월에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4월 8일 인도네시아 그로보간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 중부 그로보간 지역은 현재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탄중자티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한국중부발전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학교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건립 후원 협약식

2011. 4. 8(금) 한국중부발전(주) 17층 회의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빈곤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교육의 부재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현재까지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인 ‘희망통장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경제를 지원하였고, 또한 2004년 7월 창단된 사내 93개의 직원사회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 도배와 장판 및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또한 재능봉사를 통해 전기 시설 설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이 환경교실, 무료 급식 지원, 장학금 지급, 김장 나누기, 무료 한방 진료, 환경 정화 활동 등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교육, 환경보전, 재난 구호 등 연간 500회 이상의 국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이라크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리 교육에 관한 국내초청연수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의 공무원 및 관계 직원 대상의 국내초청연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국내초청연수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현재 두 개 지역에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로보간 지역의 낙후된 시설을 허물고 새롭게 세워질 초등학교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증진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나아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국내를 벗어나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발전회사가 되기 위해 ‘Beyond the border No. 1 Thermal Power Company’라는 슬러건 아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은 단순히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지자체, NGO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부발전(주)은 2001년 4월 창립 자산 2조 9천억원에서 출발하여 이제 5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발전설비는 창립 초기 6,390MW에서 8,398MW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공기업이다. 현재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 발전 사업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투자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은 규모, 비즈니스, 발전기술 부문에서 세계 1위 발전회사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THE 좋은 모임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플랜, 후원자를 만나다.



초여름에 접어든 지난 5월 28일, 삼각지역에 위치한 카페 LAVAZZA에서 플랜 코리아의 첫 번째 공식 후원자 모임, “THE 좋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한 이번 모임은 특별히 첫 번째 공식 후원자모임의 의미를 담아 THE 좋은 모임의 이름으로 일일카페 수익금을 후원자를 만나지 못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쓰기로 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THE 좋은 모임을 후원의 기쁨과, 웃음, 담소가 함께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지 플랜코리아 사무실은 고민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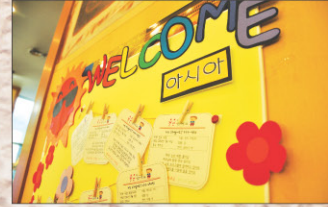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후원자님들에게 후원의 감동이 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오랜만에 후원자님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과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

“열심히 노력하는 플랜코리아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후원자 모임을 앞두고 세워 놓은 계획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후원자님들과 만나서 직접 대화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 좋은 모임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더운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플랜코리아의 직원들과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고등학생 번역동아리 플랜버드는 후원자님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포토카드 만들기”, 이동결연 캠페인 “우리 결연했어요”, 보드게임인 “플랜 지구별 한 바퀴”, 사진과 그림 전시, 플랜클럽 온라인 기자단의 인터뷰와 트위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상설 행사가 열리고, 조금씩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후원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와 다과를 마주하며 어색하고 다소 수줍은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은 메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플랜벨 타임!

플랜의 활동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면 맛있는 머핀과 마들렌 한 접시가 추가 제공되는 플랜벨 타임은 혼자 오신 후원자님들도 다른 테이블의 후원자님들과 합석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함께 문제를 맞추는 팀워크를 과시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메인 행사 1부는 후원자님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플랜의 모습들이 엿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플랜 사무실의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소개하고, 사무실 풍경을 보여준 “플랜탐구생활” 영상과 플랜인터내셔널과 플랜코리아의 지난 활동들을 소개한 “연간활동보고” 발표가 이어지자 일순간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1부의 백미는 뭉뚱하니해도 방글라데시의 아동을 후원하시는 오승수 후원자님이 들려주신 생생한 ‘이동방문과 후원 이야기’ 나눔 시간과 우수 봉사자 감사장 증정식과 후원자 게스트의 공연이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그동안 후원자님들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지난 2월 ‘THE 좋은 여행’을 통해 네पाल을 방문하셨던 후원자님들의 소감 나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아카펠라 동아리인 “하울”이 들려주는 하모니에 맞추어 다들 흥겹게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다 보니 어느새 THE 좋은 모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플랜코리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 촬영으로 추억 한 장을 남기며 우리는 ‘Be a part of THE 좋은 모임’이라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박웃음을 지으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던 5월 28일, 모처럼 맑아진 하늘만큼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고 밝아진 시간이었습니다. ☺

글_ 후원관리팀 김지승 주임 / 사진_플랜클럽



플랜의 48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국가들의 소개와 함께 플랜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Preaĥ Réachéa Nachâk Kâmpŭchéa, Cambodia



국 가 명	캄보디아 왕국
수 도	프놈펜 [Phnom Penh]
인 구	약 1천 4백 8십만 명 [2011]
종 교	소승불교 92.4%, 도교 4%, 이슬람교 1.6%, 기독교 2%
공 용 어	크메르어
교 육 제 도	초등[6년], 중등[3년], 고등학교[3년], 대학[4년]
문 맹 률	23.7%
평균 수 명	61.69세
독립 기념 일	1953년 11월 9일
플랜 사업 시작 년도	2002년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

캄보디아의 오늘

국민의 75~80%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는 농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2004년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농민 출신인 훈 센 총리는 민심을 수습하고자 농민들을 구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취약한 인프라와 원조의존형의 경제 구조로 인해 캄보디아의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는 11만 명 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2009년에는 210만 명까지 늘어났고, 2015년에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캄보디아의 교육환경

교육은 초·중·고등교육이 6년-3년-3년(대학원 3-5년)제로 이루어져있으며, 초등학교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이 만연하고 낙후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7년 이후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교육의지를 고취시키려 힘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 국민들은 중학교 과정까지 8년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T ISSUE
캄보디아에 심은 '강원초교'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 심은 강원의 훈이 결실을 거뒀다.

강원일보사와 도새마을회, 캄보디아 프놈펜 자치청만청, 캄보디아 한인회 등은 17일 캄보디아 프레이벵주에 위치한 소난차이 마을에서 소난차이 강원초교 교사 [학교 건물]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이후 183일 만에 준공식이 이뤄졌다.

신축된 교사는 교실 2개와 도서관 1개를 갖춘 1개 동으로 그동안 교실이 없어 복도와 나무 밑 그늘에서 수업을 했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플랜의 활동



- 씨엠립**
-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실시
 - 에이즈, 마약 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청소년 연극 캠페인
 - 우물을 건설하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쌀 수확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기술 보급
 -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사용과 기본적인 보건 교육 시행
- 캄풍참**
- 학교, 운동장, 우물, 화장실 건설
 - 산모와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산부인과 진료활동
 -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확대와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작기구 및 물고기 양식법 교육
 - 극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 지원

후원자와 함께하는 세 번째 The 좋은 여행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랜 후원지역 방문. 세 번째 The 좋은 여행이 후원자님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그동안 혼자 방문하기를 망설이셨던 분들, 시간이 없어서 주저하셨던 분들,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뜻 깊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캄보디아 아동을 후원하고 있지 않으셔도 참가 가능합니다.)

기간	2011년 8월 15일(월)~2011년 8월 19일(금), 3박5일
지역	캄보디아 씨엠립 [후원아동번호 781 지역]
모집인원	25명
모집기간	2011년 6월 8일(수) ~ 선착순 마감.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사무소 방문, 후원아동 및 마을방문, 프로젝트 참여 및 문화체험, 지역명소관광 [양크르와트 사원 방문]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140만원 [항공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프로그램 진행비, 비자 및 여행자보험 등 포함] [선착순 15명에 한하여 135만원] ※참가비는 환율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후 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e-mail: kno@plankorea.or.kr]
문의	02_790_543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선 하나, 후원자님,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후원아동으로부터 오는 반가운 편지, 아동발전보고서, 소식지, 연간발전보고서 등의 우편물들이 반송되어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수정해주시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후원자 정보변경 이벤트에 후원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보변경을 해주시는 플랜코리아 후원자
기간 : 2011년 5월 16일 ~ 8월 15일 (3개월간)

후원자님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 우편물 반송 비용이 줄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수정해주시는 후원자 중 매주 한 분을 추첨해 플랜 로고 티셔츠를 보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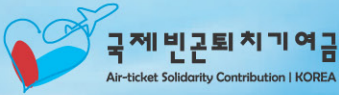
후원자 정보변경 및 문의 ☎ 02)790-5436 / e-mail: hanjh@plankorea.or.kr

실선 둘, 납부방법을 지로에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해주세요!

지로용지의 제작비용과 우편비를 절약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변경방법 ☎ 02)790-5436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천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000년 UN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국제사회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8가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고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프랑스와 칠레 등 다수 국가에서는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마다 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1_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통한 최빈개도국 3대 질병(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지원 2_민간단체(개발 NGO)들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 지원 3_아프리카 최빈국 정부에서 요청한 질병퇴치사업 지원에 쓰입니다.

플랜은 2008년부터 시작한 세네갈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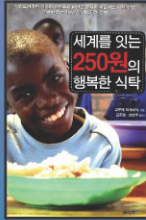
대상으로 말라리아, 결핵, 토양매개연충, 주혈흡충병 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임신부와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모기장이 보급되었고, 80%가 넘는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작한 "부르키나파소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사업"은 HIV 보균 산모에서 신생아로 이어지는 감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부르키나파소의 가족건강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산모 대상의 HIV 테스트 및 보균자 대상의 약물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고자 합의한 MDGs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관련해 2007년 제정한 법령의 시한이 2012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의 기여금 마련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법령의 연장을 위한 정부부처와 국회의 동의,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플랜코리아를 비롯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받고 있는 NGO단체들은 서명운동을 비롯한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천원의 힘에 동참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서명 참여를 기다립니다.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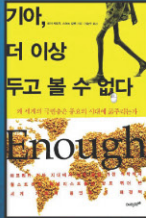
빈곤, 기아, 인신매매, 성차별, 아동폭력, 식수, 교육, 질병...
지구촌 곳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들을 소개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선진국의
비만을 동시에 해결
고구레 마사히사 지음
에이지21

세계를 잇는 250원의 행복한 식탁

선진국에 살고 있는 10억 명의 과체중 인구, 그리고 빈곤국에 살고 있는 10억 명의 기아 인구.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TABLE FOR TWO'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칼로리를 낮춘 대신 250원을 더 받는 사원식당의 식단을 제공하고 1인분에 250원 하는 급식을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한다. 기부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조차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으로 누구든지 빈곤 문제의 해결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왜 세계의 극빈층은
풍요의 시대에 굶주리는가
로저 서로우, 스크트 킬먼 지음
에이지21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En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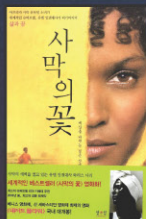
월 스트리트 저널의 저널리스트인 두 저자가 실질적이고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인류의 오랜 재앙인 기아를 낫날이 파헤쳤다. 아직도 하루에 2만 5천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현실에 대하여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치며 기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저널리스트 특유의 냉철함으로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바라보며 기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편견과 오류들을 꼼꼼하게 짚어내고 비판한 책.



2009년 오프라 윈프리
도서클럽 선정 도서
우웹 아크판 지음
은행나무

한편이라고 말해

나이지리아 출신의 사제인 작가가 아프리카에서 눈으로 보고 겪은 빈곤, 기아, 아동 학대, 인신 매매, 아동 노동, 종교 및 인종 분쟁 등의 문제를 다섯 편의 중단편으로 풀어 쓴 소설집. 케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한편이라고 말해' 라는 제목처럼 같은 끊임 없는 분쟁 속에서 어린이들이 살아남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탐 모델 와리스 디리의
한 투쟁의 여정
와리스 디리 / 캐롤린 밀러
심앤심

사막의 꽃

아프리카 사막을 달리던 소말리아의 유목민 소녀 와리스 디리는 낙타 몇 마리에 팔려 노인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현실에서 도망쳐 밀바닥 생활부터 시작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세계적 패션 모델이 된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많은 빈곤국 여자아이들을 돕고 여성할례라는 고통스러운 전통과 싸우는 투쟁을 통해 유엔의 인권대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사막의 꽃'은 얼마 전 '데저트 플라워'라는 영화로도 개봉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플랜코리아 소식



스타들과 함께 해외아동 돕기 결연릴레이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전세계 빈곤국가의 어린이들과 매달 릴레이결연을 맺으며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플랜코리아는 스타 결연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보건日的 날을 맞아 오상진 아나운서가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와 일대일 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그룹 티아라와 개그맨 윤형빈·정경미 커플이 각각 네팔과 라오스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 결연릴레이를 이어갔다. 그리고 6월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에는 배우 이소연이 캄보디아의 여자어린이와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스타 결연릴레이는 일대일 결연후원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현실과 문제들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다.



플랜코리아,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 참여

KBS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다. '어린이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나눔과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NGO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축제에 플랜코리아도 함께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홍보와 함께 9월22일 세계 여자어린이의 날 지정을 위해 UN에 전달할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행사의 마지막 날은 스타결연릴레이의 세 번째 주자인 개그맨 윤형빈·정경미 커플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사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Because I Am A Girl 도서 출간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미래, 개발도상국 여자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긴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도서가 출간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여자아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부제처럼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발도상국 여자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여자어린이를 후원하거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정기 후원한 분들을 추천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연장 국민지지 서명운동

빈곤국가의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NGO단체들이 지난 5월22일 광화문 광장에서 내년에 만료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시효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는 이용객들로부터 찬원이 부과되어 조성되는 기여금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안이 2012년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관련된 법령의 연장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 진행될 온라인 서명행사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향후 사업을 결정할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플랜클럽, 대학교 축제현장 방문!

지구촌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은 경희대학교 축제에 참여해 플랜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대학교 축제 참여 홍보행사를 통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홍보와 관련 법령의 연장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 플랜코리아를 홍보하는 부스에서는 지구촌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쓰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EXR-플랜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1일 서울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어린이주간 행사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EXR 55 리브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건국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프로젝트로 지구촌 어린이 후원 협약

부산에 위치한 건국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활동에 나섰다. 건국고등학교 학생회는 더불어 사는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뜻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모금한 후원금으로 캄보디아의 우물펌프를 지원하고, 또 네 팔과 수단에 각각 염소와 양을 보내는 The 좋은선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국고등학교 전환욱 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회임원들과 함께 플랜코리아 사무실에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우물펌프가 설치되는 캄보디아의 캄퐁창주의 Thek Chrov 마을은 열악한 수도시설과 심각한 식수 부족으로 인해 지역 어린이들의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곳 중 하나이다. 이들이 지원하는 우물펌프로 인해 지역 주민 110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SBC와 교육부와 함께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젝트

플랜은 HSBC와 협력해 엘 살바도르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적은 학교 중 여덟 개의 학교를 선정해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라 리베르타드, 카바냐스, 찰라데냥고 지역의 6세에서 16세의 저소득층 2천2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지원과 감독하에 놀이를 통해 배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플랜엘살바도르의 프로젝트 기획은 HSBC의 재정 지원과 교육부의 협력으로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주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법, 협력하는 법,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잠재력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HSBC는 지난 3년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환경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태양광을 이용한 탄자니아 식수문제 해결

플랜은 부족한 식수문제와 열악한 위생환경을 갖고 있는 탄자니아에서 키사라웨 지역의 7개 마을에서 1만5천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수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과정은 오염된 물을 투명한 플라스틱 물통에 넣고 태양 아래 6시간 정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UV-A와 태양광을 통해 물속 미생물이 살균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화되는 태양광식수살균처리(SODI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간단한 방법과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스스로 안전한 식수를 얻으며 질병과 식수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 도시와 떨어진 대부분의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함으로써 설사병,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놓여있다. 플랜의 SODIS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지역의 식수문제와 어린이들의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지진피해지역에 행해진 플랜 긴급구호 활동

지난 3월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 지역은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재건과 복구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랜은 미야기 현의 센다이 지역에 긴급대체사무소를 두고 즉각적인 긴급구호활동을 벌이며 생필품 키트를 배포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아동친화적 공간의 조성과 심리사회적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진행한 "학교로 돌아가기(Back-to-School)"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지역의 학교 복구 작업과 학용품 키트 배급 및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플랜은 단기간의 긴급구호 단계를 지나 12개월 간의 조기회복단계의 활동을 통해 지역정부와 관련 네트워크, 자원봉사자의 긴밀한 협력을 하며 지속적인 재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인신매매와 납치로 희생되는 어린이들

플랜은 5월 25일 세계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개발도상국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수많은 어린이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 받으며 인신매매와 납치, 성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은 매년 12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위험에 놓여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은 출생등록신고 캠페인(Universal Birth Registration)을 벌이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출생등록이 되지 않고, 이는 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한 플랜의 출생등록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32개 국가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출생등록이 진행되었고, 또 10개 국가에서는 1억 3천 3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출생등록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된 법조항이 생기는 효과를 낳았다.



말라위 산모건강을 위한 플랜의 활동

플랜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응급조산치료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숙련된 산파를 양성하기 위해 말라위의 릴롱웨 지역의 보건과와 협력관계를 통해 보건관련종사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플랜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센터의 숙련된 의료진과 산파의 도움을 받게 된 많은 임신부들이 늘어나고, 특히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과 사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건 의료센터와 산파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산모들이 출산 전·후의 과정에서 저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라고 만족하는 임신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의료센터의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열정을 통해 플랜은 산모와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





또 다른 이름의 기부, 플랜샵

플랜샵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 소비를 실천한다는 것!



플랜 마켓팅백 (그린/그레이/블루/오렌지)

환경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멀티백

희망의 새싹 화분 (비타민/무순)

어린이들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는 새싹



플랜로고 시계

(블랙/화이트/블루)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마음의 시간

플랜코리아 온라인몰

플랜샵 02)516-5107 www.planshop.co.kr